



이달의 포커스 뉴스

**제조업 투자의 첫걸음,
입지조사 및 토지계약의 유의점은 무엇일까?**

23P

2022 베트남의 새 법규와 개정 동향

28P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베트남 비즈니스이야기 1탄>	기은무역 김한용 대표 14
☑	<기업탐방> 이랜텍,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	조장현 법인장 18
☑	<법률자문> 산업 부동산 계약에 대한 법적 쟁점 ..	전현우 변호사 23
☑	<법률> 2022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	김유호 변호사 28
☑	<새로나온 베트남 관련 보고서>	30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까마우성>	32
☑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39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44



대한 독립 만세! 그날의 함성!





베트남 RCEP 공식 발효와 원산지 관리 실무 현황

- 2022년부터 베트남 RCEP 공식 발효
- 베트남 정부의 RCEP 정책 수립방향 공개에 따라 제조업 진출기업의 전략수립이 필요

RCEP 발효와 메가 FTA 시대의 의미

2022년 1월 1일 베트남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공식 발효되었다. RCEP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으로 구성되어 있다. RCEP 이행기간은 최대 20년 장기기간의 전환기간(점진적 시장개방 기간)으로 시장 개방에 부여되는 유예기간이 길어 급진적 개방에 거부감이 있는 아세안 개발도상국을 메가 FTA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메가 FTA는 다수 체약국의 참여로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 시키는 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RCEP은 역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메가 FTA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RCEP이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RCEP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중단된 글로벌 공급망을 재건하고 세계적 신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지역 내 협력을 촉진하며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ADB에 따르면 RCEP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지역 내 소득은 연간 미화 2,450억 달러, 지역 고용은 28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팬데믹으로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은 RCEP 역내국가 특히 아세안 국가에서 실업률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산업군은 IT·의류·신발류·농업생산품·자동차·통신 등 다양하게 분포한다.

베트남의 RCEP 정책 수립방향

RCEP이 공식 발효된 직후인 2022년 1월 4일에 베트남 정부는 RCEP 이행에 관한 총리령 결정문(01/QĐ-TTg)을 발효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이행지침이 부재하여 실질적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베트남 정부의 RCEP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결정문이다. 해당 결정문은 관련 기관 및 조직에 임무와 책임을 할당하고 RCEP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침, 관리방향 및 기타 조치를 결정했다. 정부 부처·기관·인민위원회 등에 RCEP의 활용과 관련된 세무정책과 원산지 규정 등을 담당자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RCEP 협정 활용 및 수출입, 국내시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지침과 설명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RCEP발효 후 베트남 원산지 실무 현황

RCEP은 협정문 제3.1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을 ①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②인증수출자가 자율발급한 원산지 신고서 등으로 규정해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제도의 혼합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최근 RCEP용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합일된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에서도 곧 공식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RCEP이 15개국 역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각 국가에서도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점차 공개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각 국가별로 세부규정이 공개되면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 당사자들의 RCEP 활용 세부전략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베트남 사회경제발전목표

- 베트남 정부,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 6.0~6.5%, 1인당 GDP 3,900달러 도달, GDP의 제조업 비율 25.5~25.8%, 물가상승률 4% 이내 유지
- 2022년 코로나19 효과적 억제 및 조업 지속 능력이 사회경제발전목표 달성의 관건

2022년 베트남 사회경제 주요 발전 목표

베트남 정부는 2022년 1월 8일자 사회경제발전목표 결의안(01/NQ-CP)을 발행하고 우선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 6.0~6.5%, 1인당 GDP 3,900달러 도달, GDP의 제조업 비율 25.5%~25.8%, 공공투자자본 100% 지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연평균 4% 유지 등이다.

2022년 베트남 사회경제발전목표 12개의 주요 과제와 해결책

순번	주요 과제	해결책
1	코로나19를 예방·통제하며 사회경제 발전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	▲6.0-6.5%의 GDP 성장을 위해 노력 ▲1인당 GDP 3,900 달러에 도달 ▲거시경제 안정 유지 ▲소비자 물가지수(CPI)약 4%로 통제하여 거시경제 균형을 보장
2	제도 건설 및 법 집행 조직	▲자본, 통화, 노동, 과학 및 기술, 부동산 등 모든 종류의 시장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제고 ▲개발금융 및 증권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틀 완성 ▲국제 금융시장 적극 참여 ▲국가 디지털 변혁과 혁신을 촉진
3	경제 생산성·품질·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투자 자본할당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장애물 제거에 중점 ▲공공투자자본 100% 지출 노력 ▲성장모델 혁신 ▲공공부채관리
4	현대 기반 시설 및 시스템 신속개발	▲핵심기반 인프라 건설 가속화 ▲전력 개발 사업 일정 보장 ▲국가 디지털 플랫폼 관련 프로젝트 우선 시행
5	과학연구, 응용기술 및 혁신과 연계한 교육 훈련의 질 개선 및 인적 자원 개발	▲고수학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교육 훈련 포괄적 개혁에 대한 결의안(29/NQ-TW) 지속적 시행
6	경제구역, 도시발전 촉진, 기본 계획 수립 및 승인 진행 가속화	▲2022년 기본 승인 완료 목표 ▲2021-2030 국가 및 지방 계획기간에 대한 기후변화, 녹색도시, 스마트시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기반 시설 개발
7	사회경제적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발전 진보 및 사회 정의 실현	▲산업단지 및 신도시 문화기관 효율성 개선 ▲문화유산 보존 ▲2022년까지 보건시스템 및 의학 역량을 개선하여 인구 1만명당 9.4명의 의사, 29.5개의 병상 확보 노력
8	토지·자원 효과적 관리 및 사용	▲환경 보호 부문 강화 ▲자연 재해 예방 ▲기후 변화 적응 ▲해상 풍력 발전 중점 발전 ▲수자원 효율적 사용 및 물 안보 보장
9	당 건설 사업강화 및 국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부정 부패 타결 ▲정부 부처 내 기능 및 조직기구 통합
10	국방 및 안보 잠재력의 공고화	▲자주권·영토보전을 확고히 수호 ▲정치안보 및 사회질서와 안전 보장
11	대외 업무의 효율성 및 국제사회 통합	▲국제 무대에서 베트남의 위상 강화에 기여
12	정보 보급 촉진	▲대중 동원 작업의 효율성 향상 및 사회적 합의에 기여

시사점

베트남은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약 5개월간의 조업중단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수출입 규모를 기록하고 무역흑자를 달성하였다. 올해 베트남의 사회경제발전목표 달성의 관건은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조업을 유지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지, 연간 수출입 규모를 목표 이상으로 달성하면서 무역흑자를 이룰 수 있는 지에 달려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베트남 6대 시장 트렌드는?

- 고속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베트남 핵심 쇼핑 수단으로 급부상
- 자산 관리 방식의 다양화로 핀테크 시장 성장세 지속 전망

1. 소셜미디어 'Tiktok'의 부상

MZ세대 중심의 플랫폼인 틱톡은 2021년에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여 베트남에서 4번째로 인기있는 소셜 미디어 채널로 급부상했다. Q&Me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Z세대의 71%가 TikTok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2. 고속 성장하는 전자상거래시장, 베트남 핵심 쇼핑 수단으로 급부상

2021년 장기간 지속된 봉쇄로 전통 재래시장과 식료품점은 시장 진입이 제한되었으며, 모든 비필수 오프라인 상점이 문을 닫아야만 했다. 이에 온라인 구매 수요는 급증했고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2022~2025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연평균 17.35%씩 성장, 2025년에는 232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3. 자산관리 변화로 핀테크 시장 급성장

금융서비스는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기술 등을 활용하여 모바일뱅킹이나 앱카드, 가상화폐 외환 송금, P2P 대출 등이 있다. 베트남 핀테크 시장은 전자결제 중심으로 발전되는 양상이며 그 외에 P2P 대출, 암호화폐, POS가 뒤를 잇고 있다.

4. 친환경 브랜드 MZ 세대 지갑 열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MZ세대가 주력 소비층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5. 베트남 인플루언서 마케팅 영향력 커져

7Sat의 베트남 인플루언서 마케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광고를 신뢰하는 소비자는 매우 적으며 90%는 인플루언서의 추천을 신뢰하고 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소비자와 브랜드 모두에게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인플루언서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6. 베트남에도 메타버스 관심·투자 이어져

최근 베트남에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베트남 토종 메타버스 스타트업 기업에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베트남 블록체인 스타트업 와이이다(Whydah)와 버스허브(VerseHub)의 경우, 해외에서 각각 2,500만 달러, 1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공적인 홍보를 보이며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개방형 메타버스 생태계를 개발하고 있다.





베트남 물류시장의 극복과제와 기회

- 2021년 Agiligy 신흥시장물류지수 순위에서 전년대비 3계단 상승한 8위에 올라
- 베트남, 아세안 역내 및 국제 물류 공급망의 중심지가 될 잠재력이 있는 시장

2021 신흥시장물류지수(Emerging Market Logistics Index) 8위 쾌거

글로벌 물류기업 Agility는 2009년부터 매년 신흥시장물류지수(Emerging Market Logistics Index) 순위를 발표한다. Agility는 국내 물류사업 기회, 해외 물류사업 기회, 물류 사업기반 등 세 가지 평가기준을 세운 후 기준별로 5~6개의 세부 평가 항목을 마련하고 IMF, WTO, UN, WEF, OECD, 각국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해 신흥시장물류지수 순위를 매긴다. 2021년 3월에 발간된 신흥시장물류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평가대상 총 50개국 중에서 전년대비 3계단 상승한 8위를 차지했다.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물류산업의 부흥

전자상거래는 코로나19로 인해 수혜를 받은 분야이다. 비대면 쇼핑 및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의 구매 유형도 직접 상점에 가서 쇼핑하고 결제하기보다는 전자상거래 물품을 통한 구매와 전자결제를 선호하게 되었다.

물류산업의 자동화

코로나19로 인해 물류시장에도 디지털 전환 바람이 불고 있다. 물류산업은 배송·항만서비스, 물류창고, 운송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원자재 및 상품을 배송하고 운송하는 것은 물류산업에서 기본적인 사업 분야이 나 각각의 서비스 분야에서 AI를 사용한 분류 및 분석, 로봇을 사용한 창고관리, 물류 앱을 사용한 B2B, B2C 소비자 관리 등 다각도에서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기술을 도입하는 투자기업도 증가 추세에 있다.

베트남의 대표 물류 IT 앱 활용 항구, 사이공뉴포트

사이공뉴포트(Saigon Newport)는 베트남의 물류 분야의 선구적인 항구 중 하나로, 베트남 해운물류 전반에 디지털 전환 영향을 끼치는 기업이다. 사이공뉴포트는 ePort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베트남 해운업 및 물류업의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정부기관, 해운사, 물류회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교환하게 만들며 해운업 및 물류업 디지털 전환 플랫폼 솔루션 구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베트남 물류시장의 외국인 투자 동향

베트남 투자기획부(MPI) 산하 투자청(FIA)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20일 기준, 물류 분야의 유효사업 누적 투자 건수는 총 등록 자본규모 57억6054만 달러, 사업건수 899건으로, 베트남에 투자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사업건수의 약 3%, 총 투자규모의 1%를 차지한다.





2021 베트남 중부지역 경제리뷰

- 2021년 중부지역 평균 성장률 4.76%, 4차 코로나 대유행에도 선방
- 제조업 및 건설업이 성장 견인, 민간 투자 및 소비회복에는 시간 필요

2021년은 베트남 경제의 가장 힘들었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을 포함한 23개 성·시에 봉쇄조치가 내려져 많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관련하여, 차세대 투자진출 유망지역이자 다낭무역관 관할지인 베트남 중부지역의 2021년 경제상황을 돌아보고, 향후 경제전망과 함께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대응방향을 살펴보겠다.

2021년 중부지역 경제 개관

베트남 중부지역도 최근 코로나 19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대부분의 성·시가 6~9%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지만 코로나 이후 최근 2년간은 급격히 성장세가 저하되었다. 특히, 다낭시와 꽝남성은 1997년 이후 23년만에 이례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코로나19의 피해를 혹독하게 겪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끈뚱성을 제외한 중부지역 성·시가 전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중부지역 경제가 코로나19에 대한 내성을 바탕으로 회복에도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및 분야별 경제 현황

(산업별) 코로나19 피해 회복은 산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농림어업의 경우 코로나19에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서비스 및 제조·건설 분야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 큰 낙폭을 기록하며 민감한 양상을 보였다. 2021년에는 제조 및 건설업이 회복하며 각 성시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변이바이러스, 입국 제한 지속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어려워 제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투자) 2021년 투자 부문은 중부지역 각 성·시별로 혼조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공공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민간 및 외국인 투자지출 감소분을 상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 신규 투자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부지 실사, 투자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되고 있어 민간투자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판매) 2021년도의 중부지역 소비판매는 평균 5.29%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 평균 증가율 14.31%와 비교할 때 상당히 부진한 결과이다. 다낭, 꽝응아이 등 일부 성시에서는 각각 -2.14%, -3.6%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속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및 봉쇄조치로 인한 실업 및 구매력 상실 등이 소비판매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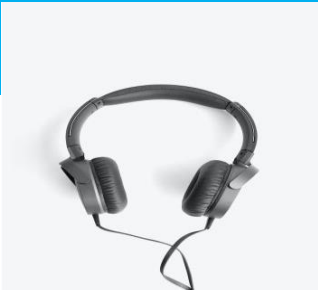
시사점

2021년 베트남 중부지역 7개 성·시의 평균 성장률 4.76% 기록하며, 2020년의 극심한 부진(평균 성장률 0.4%)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에 청신호를 켜다. 특히, 관광서비스 비중이 높은 다낭, 꽝남, 트어티엔후에성 등은 향후 관광이 재개될 경우 회복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헤드폰 시장동향



- 코로나 영향으로 건강 위해 운동하는 사람 늘면서 헤드폰 판매량 증가
- TWS Earbuds 등장으로 무선 이어폰 수요 급감

베트남은 젊은 세대의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고, 전자기기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헤드폰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정 내 헤드폰 보유량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수입동향

GTA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헤드폰(HS CODE 851830)의 수입액은 약 1억1400만 달러로 2020년 대비 59% 감소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순이다.

Euro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2021년 헤드폰 판매량이 약 385만 대로 예상되고 2026년까지 약 500만 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동향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되는 헤드폰은 애플(미국), 소니(일본), 샤오미(중국), 삼성(한국), 하만(미국), 젠하이저(독일)를 순서로 주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브랜드 중 고가 제품 군으로 Bose, JBL 등이 있다.

시사점

베트남의 헤드폰 시장은 노이즈 캔슬링 같은 기능이 탑재된 TWS Earbuds의 등장으로 빠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음악 시장과 OTT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도 헤드폰 시장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며 베트남 사람들의 스포츠 활동 증가와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의 개인 공간 활용 증가도 헤드폰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 되고 있다.

베트남 헤드폰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보장되는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수출해야 한다. 베트남은 경제성장을 빠르게 이루어 국민 소득이 크게 성장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격과 품질을 모두 고려해 현지 시장 트렌드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 2022년, 대베트남 FDI 급증 전망. 올해 2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은 팬데믹으로 인한 공백 끝에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올해 두 달 동안 베트남은 21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유입되어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 외국인 투자부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71개의 FDI 프로젝트가 투자 확대를 신청했으며 이는 기업의 회복 속도를 높이려는 강력한 노력을 보여주는 제조업 부문에 긍정적인 신호임. 또한, EuroCham의 비즈니스 기후 지수(BCI)는 코로나바이러스의 4차 물결 이후 최고점에 도달했으며 긍정적인 감정지수는 61포인트에 도달함. 응웬 찌 중(Nguyễn Chí Dũng) 기획투자부 장관은 '한국, 일본, 유럽, 미국의 주요 기업, 특히 미국 기업이 2022년 베트남에 신규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전함.

[Vietnam News, 2. 18]

▶ 삼성, 타이응웬성에 9억 2,000만 달러 추가 투자

타이응웬성은 2월 16일 삼성전기의 9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승인함. 이에 따라 삼성의 타이응웬성에 대한 누적 투자규모는 기존 13억 5,000만 달러에서 22억 7,000만 달러 규모로 증가함. 삼성전기는 2013년 12억 달러의 최초 투자 승인을 받고 베트남 법인을 세운 바 있으며, 이후 7회의 투자 조정승인을 받아 2020년까지 1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법인 및 공장을 운영함. 삼성전기 타이응웬은 HDI 고밀도 인쇄 회로 보드(FPCB, 연성인쇄회로기판) 등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며 통신장비 구성요소 및 예비부품(카메라모듈, 어댑터 등)을 생산함. 2021년 말 기준 삼성 베트남의 총 누적 투자자본은 180억 달러이며, 삼성은 박닌, 타이응웬, 호치민 등에 6개의 제조공장, 하노이에 각각 1개의 R&D센터와 판매법인을 두고 있음.

[VN Express, 2. 16]

▶ 1월 베트남 VAMA 회원사 자동차 판매대수 전월 대비 34% 감소

베트남자동차생산자협회(VAMA)에 따르면 VAMA 회원사 기준 2022년 1월에 판매된 자동차는 3만 742대로 전월 대비 34% 감소함. 이와 더불어 현대 TC 모터는 7,428대, 빈패스트는 2,103대를 판매하여 베트남에서 1월 내 판매된 자동차는 총 40,273대임. 현대 TC 모터는 1월에 7,428대를 판매하여 자동차 판매사 별 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도요타 6,582대, 기아 5,445대, 혼다 3,771대, 미쯔비시 3,581대로 그 뒤를 이음. 현대 TC 모터 관계자는 베트남 음력설 연휴 동안 소비자들이 설연휴 관련 지출에 집중하여 차량 구매율이 감소했다고 분석함. 한편 베트남의 국내 조립·생산 자동차 등록비 50% 면제가 5월 말까지 계속되며 다음달부터 판매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2. 16]



▶ 2021년 베트남 철강 수입 115억 2,000만 달러, 전년 대비 42.8% 증가

2021년 베트남은 115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철강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1,230만 톤으로 전년대비 수입액 42.8%, 수입량 7% 증가한 수치임. 베트남은 주로 중국에서 철강을 수입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43억 8,000만 달러, 수입량 500만 톤으로 베트남 총 철강 수입액 및 수입량의 38%, 40.3%를 차지함. 대베트남 철강 수출 2위를 기록한 국가는 일본임. 지난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철강은 190만 톤이며, 이는 17억 3,000만 달러로 2020년 대비 수입액 23.8%, 수입량 22.8% 증가한 수치임. 한편 대한민국은 2021년 동남아시아 국가에 철강 150만 톤, 총 15억 9,000만 달러를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대비 24.4%가 증가한 수치이며, 일본을 뒤이어 베트남 철강 수출 3위를 기록하였음.

[Vietnam Plus, 2. 15]

▶ 베트남 정부, 1만여개의 민간기업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

베트남 정부는 UN이 2030년 제시한 17가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기업 1만여개사를 향후 3~4년간 지원할 것을 발표함. 정부는 민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사업을 측정, 평가, 인정하기 위해 최소 10가지 평가 도구와 솔루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존 대비 연간 총 전력 소비량의 5~7%를 절약하고, 노동 생산성을 약 7% 향상 시키는 목표 달성을 지원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지속가능 기업으로 선정된 민간기업 1만여개사는 ▲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 ▲ 인재 교육과정 구축 교육 지원 ▲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구축 및 구현 교육 지원 ▲ 기술지원·기술이전·저작권 관련 컨설팅 지원 ▲ 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 ▲ 기업의 재정 자원 및 투자자금 확대 솔루션지원 ▲ 통신·무역 진흥 프로그램·유통 채널 확장 관련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됨.

[Vietnam Investment Review, 2. 14]

▶ 베트남 여행산업 회복을 위해 한국 등 24개국 비자면제 추진...문화체육관광부 요청

코로나19 이전, 베트남 비자면제 혜택 적용 국가는 24개국, 전자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46개국이었으나 '20년 3월부터 해당 24개 국가의 비자면제를 중단하였음. 하지만 베트남 보건부에서 '22년 3월 31일까지 베트남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자면제 혜택을 받던 24개국 관광객에 대한 사전 비자 면제 재개를 정부에 요청함. 비자면제 국가 목록에는 대한민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시/성 인민위원회에서 관광 개방 여건을 먼저 마련하고, 안전 보장을 위한 여행객 관리 및 의료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알림.

[Vietnam Plus, 2. 14]



▶ 베트남 소매시장 작년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회복세 예상

2021년도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베트남 국내 소매업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함.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매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트렌드, 인력, 창고 운영, 공급망 등의 변화로 최근 2년간 가장 큰 난제에 직면해 있다고 알림. 특히 호치민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4차 대유행 기간동안 전통적인 상품 공급 방식이 아닌 새로운 유통 시스템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였음. 이에 맞춰 국내 소매업체들은 기술 혁신에 투자하고 운영 및 배송 서비스 등을 개선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켰음. 대표적으로 Mega Market, AEON, 롯데마트 등 베트남 대형 유통채널은 온라인 판매 솔루션인 홈페이지, 잘로(Zalo), 각종 앱,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다채널 판매를 위한 투자와 개발을 이어가고 있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매시장의 변화를 통하여, 베트남 유통시장이 코로나로 인해 성장률은 낮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평가함.

[The Star, 2. 12]

▶ 북부 하이퐁 제2공항 띠엔랑(Tien Lang) 신공항 건설 승인

팜 민 찌(Pham Minh Chinh) 총리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깻비(Cat Bi)에 이어 두 번째 국제공항이 될 띠엔랑(Tien Lang) 신공항 개발에 대한 하이퐁 당국의 제안을 승인함. 총리는 교통부에 2050년을 향한 비전과 함께 2021-2030 기간에 국가 공항 계획에 포함된 띠엔랑(Tien Lang) 공항 건설 계획을 연구할 것을 요청함.

[Vietnam Net, 2. 12]

▶ An Phat Holdings, 동남아 최대 규모의 PBAT 퇴비 수지 공장 하이퐁에 착공

An Phat Holdings는 2월 9일 하이퐁 Nam Dinh Vu 산업단지에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PBAT 퇴비 수지 공장을 착공함. 연간 3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이 공장은 향후 24개월 이내 완공될 예정임. PBAT 퇴비 수지공장은 동남아시아 최초·최대규모의 친환경 소재 생산 공장으로 자동화율이 높아, 연간 8,400시간, 350일 가동이 가능하며 약 2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알려짐. An Phat Holdings는 원자재 해외공급 의존도와 단가를 낮추어 베트남 소비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며, 기존 플라스틱 제품의 대체제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An Phat Holdings의 친환경 퇴비 수지공장이 완공되면 생분해성 플라스틱 재료와 제품을 생산하는 베트남 최초의 기업이 되며 PBAT공장 가동 후에는 친환경 수지제품 가격도 약 20~3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Vietnam Investment Review, 2. 10]



▶ **의료용 마스크·장갑 재수출 위해 2022년 3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수입 잠정 중단**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2022년 3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료용 마스크, 장갑 및 방역복 등 방역물품의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통관을 잠정 중단하는 시행령(03/2022/TT-BCT)을 발행함. 이 시행령은 의료용 마스크, 장갑 및 방호복의 밀수, 사기 및 불법 환적의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통제 및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에 따르면 재수출을 위하여 수입 통관이 임시적으로 중단되는 의료용 마스크의 HS 코드는 6307.90.40/6307.90.90이며, 의료용 장갑의 HS코드는3926.20.90/4015.11.00/4015.19.00, 방호복·보안경·방역 신발 등 기타 방역 품목에 대한 HS 코드는 6210.10.90임.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임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의료용 마스크, 장갑, 방호복 등은 시행령 69/2018/ND-CP에 따라 재수출해야 함.

[베트남 정부포털, 2. 9]

▶ **2월 11일부터 휘발유 가격 급등**

2022년 1월 21일 기준 휘발유 E5 RON92는 리터당 440동(23.3원)인상된 23,590동(1,247원), RON95는 리터당 290동(15.3원) 인상된 24,360동(1,287원) 이었으며, 등유는 리터당 660동(34.9원) 인상된 17,790동(940원), 디젤유는 리터당 690동(36.5원) 인상된 18,900동(999원)이었음. 산업무역부의 2월 7일 자료에 따르면 RON92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01.8 달러, RON95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04.13 달러로 기존 조정기간 가격에 비해 약 7% 증가함. 2월 1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소 1,000동(52.7원) 이상 인상되며, 휘발유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계속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Nhan Dan, 2. 8]

▶ **Fitch : 2022 베트남 경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

Fitch Ratings는 베트남의 내수 시장이 회복되고 수출실적이 강세를 유지하면서 2022년 베트남 경제가 빠르게 회복 될 것이라고 전망함. Fitch에 따르면 베트남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22-2023년 기간 동안 GDP의 약 41%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함. 베트남 은행 분야의 부실채권은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과 경제 활동 제약으로 인하여 2021년에 증가했으나, 2022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은행의 자본 발생 속도는 완만하게 유지 될 것으로 예측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2. 7]

▶ **UNDP, 베트남 신흥국 발전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1억 2,100만 달러 지원**

유엔개발계획(UNDP) 이사회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베트남 신흥국 발전 프로젝트에 1억 2,1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승인한다고 밝힘. UNDP는 5개년 계획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변화, 기후 복원력 및 거버넌스 향상에 중점을 둘 예정임. 기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UNDP는 베트남의 자연과 환경에 중심을 두고 다차원적으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베트남 정부가 예측성, 적응성, 민첩성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전망임.

[Hanoi Times, 2. 7]



▶ 베트남 '22년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53.7로 회복세 지속

IHS Markit은 베트남의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3.7로 전월 52.5 대비 1.2포인트 상승하며 제조업 경기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힘. 또한 2022년 1월 베트남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202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IHS Markit은 베트남 제조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조업관련 제약이 완화되거나 사라지면서 2022년에 긍정적인 출발을 했으며,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함.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 제조업 부문 구매관리자의 활동 수준을 뜻하는 수치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나타내며 50 미만은 경기 위축을 뜻함

[VN Express, 2. 4]

▶ 보건부, 코로나19 위험 수준 평가 기준 개정

베트남 보건부는 1월 28일 코로나19에 대한 안전하고 유연한 적응 및 효과적인 통제에 관한 정부 결정서 128에 따라 코로나19 위험수준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결정서(218/QD-BYT)를 새로이 발표함.

- (레벨1 : 저위험 지역) 군·현 인구 10만명 당 신규 감염자 90명 이하, 음압병동 사용 중증환자 1명 이하
 - (레벨2 : 중간위험 지역) 군·현 인구 10만명 당 신규 감염자 90명~449명, 음압병동 사용 중증환자 1~31명
 - (레벨3: 고위험 지역) 군·현 인구 10만명 당 신규 감염자 450~600명, 음압병동 사용 중증환자 32~40명
 - (레벨4: 초고위험 지역) 군·현 인구 10만명 당 신규 감염자 600명 초과, 음압병동 사용 중증환자 40명 초과
- 또한 의료시설의 수용율과 코로나19 감염 환자 수용가능 정도, 중환자실 개수 등을 포괄하여 위험수준 평가를 개정함. 개정된 평가기준이 반영된 지역별 코로나19 위험 레벨은 보건부의 발병평가수준 웹사이트 (<https://capdodich.yte.gov.vn/map>)에서 확인 가능함.

[베트남 정부포털, 1. 28]

▶ 2022년에도 온라인 쇼핑 붐 지속 예상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더라도 온라인 쇼핑은 올해에도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함.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자다(LAZAD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자상거래 부상에 힘입어 디지털 경제가 크게 성장함. 동남아시아 지역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5년 50억 달러 규모에서 2021년 1,200억 달러로 최근 6년간 24배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으며, 2025년에는 2,3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시장 또한 지난해 130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390억 달러로 4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동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베트남인은 편의성의 이유로 온라인 쇼핑을 계속 이용할 것이라 전했으며 이번 대유행은 고객의 행동과 쇼핑 습관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보고서는 인용함.

[Vietnam Plus, 1. 27]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Duc Hoa 500kV 변전소
- Binh Thuan 티타늄 광물지대 산사태경보시스템 구축
-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oohopark@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Duc Hoa 500kV 변전소 변압기 설치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EVN NPT(National Power Transmission) ○ 연락처 : +84-24-2222-6666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Long An성, Duc Hai군 ○ 규모 : 약 10 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펀딩 ○ 프로젝트 단계 : Land Clearance 진행 중, '22년 3분기 입찰 예정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oltage level : 500/220/350kV - Capacity : 900MVA

- Binh Thuan 티타늄 광물지대 산사태경보시스템 구축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An Hoa Tech ○ 연락처 : +84-96-323-3838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Binh Thuan성 ○ 규모 : 약 1~2 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정부재원 ○ 프로젝트 단계 : 파트너 모색 중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타늄 채굴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산사태경보시스템 구축 - 지역 범위 : 5ha



김한용 대표의 베트남 비즈니스 이야기 1탄

기은무역 김한용 대표



기은무역 설립, 일본 수출로 큰 성공

나는 1978년도에 대학을 졸업하여 섬유회사에 입사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때는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황금기였었던 것 같다. 그 당시는 한양대학교에서 독학을 지나서 성수동 그리고 워커히까지, 거의 건국대학교 근처까지도 모두 공장이었고 90%가 섬유공장이었다. 그 공장들은 그 이후 반월공단으로 상당수 이전하기는 했다. 내가 갓 입사하여 근무할 당시에는 매일같이 야근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쉴 새 없이 공장, 바이어 그리고 물류회사를 다니며 사업을 배웠다. 물론 라테 이야기다. 그 당시 나는 젊었고 더 큰 도전을 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섬유업계에서 익힌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과감하게 기은무역을 창업하였다.

기은무역은 1991년에 설립되었다. 바이어에게 발주를 받아 적절한 공급업체를 물색하여 물건을 확보해 납품하는 방식이었다. 일본에 대한 의류 수출을 주력으로 하였는데 1993년도와 1994년도 두 해에 연이어 500만불, 1000만불 수출탑을 받았고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즈니스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88올림픽을 거치면서 노동현장에 큰 변화가 생겨났다. 여태껏 억눌려왔던 노동자들의 요구가 용솨음치면서 관련 제도가 엄청나게 생겨나기 시작했고 인건비도 급속도로 오르던 시기였다. 그렇게 몇 년 후 90년도 중반의 한국은 이미 섬유산업에 필요한 저임 노동력을 확보하기 점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 섬유공장에는 일부 7~80년도에 미싱을 배우셨던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근무하였었고 신규 인력공급은 거의 끊어지고 있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남아 계시던 분들도 점차 자연 이탈하면서 노동력확보는 더욱 어려웠다.



반면 중국은 점차 시장을 개방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기 시작하였다. 거대한 노동인구를 무기로 점차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도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해보고자 1990년도 중반 즈음부터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맺어 나갔다.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당분간 잘 통했다.

중국내 비즈니스 환경 변화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기은무역의 주력수출품목은 니트였고 주요한 경쟁사는 대만기업들이었다. 이 대만기업들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2000년 즈음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대만기업들은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중국 내 연고가 있는 지역(주로 가족의 고향)에 투자를 하였는데 특히 저장성, 난징, 상해를 둘러싼 남쪽 연안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그 당시 대만기업들은 언어적, 문화적 이점 외에도 설비면에서도 앞서고 있었다. 당시 세계 최고 품질로 꼽히는 독일산 자카드(여러 색의 실을 사용하여 무늬를 짜낸 원단) 특수 기계가 있었는데 이 기계는 한국에도 몇 대 도입되지 않은 고가의 제품이었다. 그런데 대만 기업들은 이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중국에 투입하였다.

그렇게 대만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다 보니 한국기업들보다 경쟁력이 앞서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우리 섬유기업들의 활동지역은 칭다오나 선양, 요동 반도쪽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이 무렵부터는 일본에서 오더를 받아서 중국에서 생산하여 납품하는 우리 회사 같은 기업들이 고전하게 되었다. 대만기업들은 자국어로 중국인들과 소통하고 문화적 차이도 없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통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통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았다. 기은무역도 2000년도부터는 대부분의 오더를 대만기업에 빼앗기게 되었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공장설립 등을 고려하고 선양, 상하이, 난징 등을 돌아다녀 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망이 없었다.





베트남과의 운명적 만남

그런 고민들을 하던 어느 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반가운 지인을 만나게 되었다. 반가운 마음에 동네 근처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지나간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지인이 ‘방림방적’에서 본부장직을 맡고 있다는 게 아닌가. 독자 제위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으나 방림방적은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방림방적이 원단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한국에서 TC원단(면혼방원단)류의 와이셔츠 및 아웃도어의류가 생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내가 활동할 당시인 1980~90년도 초반의 방림방적은 원단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슈퍼 갑’의 위치에 있었다. 의류업체 입장에서는 방림방적의 원단을 얼마나 공급 받느냐가 그 회사의 생명을 좌우하였다. 특히 각종 와이셔츠를 생산하는 회사는 방림방적에 잘 보이지 못하면 원단을 구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 당시 방림방적 상담실에서는 방림방적의 주임급 실무자를 만나려고 의류기업의 사장들이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릴 정도였다.

이처럼 그 당시는 방림방적의 위상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는데 친한 지인이 영업본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야말로 아주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웬지 이 지인은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 같아 나는 그에게 나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직원도 많고 공장을 만들긴 해야 하는데 중국은 힘들 것 같고, 어떡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나에게 베트남을 가보라고 추천하는 게 아닌가.

중국, 일본은 나름 전문가인데 베트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 막막한 마음이 컸다. 그 때 생각난 게 코트라에 근무하고 있던 정동식님 이었다. 그와는 대학동문으로 대학 재학시절 룸메이트를 할 정도로 친한 형님·동생 사이였다. 무작정 코트라를 찾아가 그를 만났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2002년 당시 그는 코트라에서 본부장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내 설명을 들더니 당시 하노이무역관 오재호 관장을 소개해 주면서 하노이를 방문해보라고 권했다.

그 길로 나는 베트남 땅을 처음 밟게 되었고 하노이 무역관장과 인사를 나눈 후 코트라에서 주선해준 방림방적 베트남 법인과 미팅을 갖게 되었다. 방림방적은 90년대 초 한-베트남 수교직후 베트남에 투자하여 베트남 공식 한국투자기업 1호로 푸토성에 진출해 있었다.

고민 끝에 내린 푸토 공장설립 결정

방림방적 베트남 법인과 미팅을 통해 대략적인 투자 환경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투자를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며칠간 둘러본 베트남의 모습은 나에게 너무나 생경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베트남은 중국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그 당시 베트남 사람들 상당수가 신발도 신지 않고 길거리를 다녔었고 그 외에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이유가 베트남을 더욱 낯설게 만들었다.

또한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나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다. 섬유업계에 수십 년간 종사했으면서도 나는 공장을 한 번도 직접 운영해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간의 비즈니스 방식이 바이어에게 오더를 받아서 방적회사에 가서 원단을 산 후, 곧바로 임직 공장에 보내어 임직 작업을 마치고, 염색소로 이송 시켜서 염색작업을 한 후 납품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쉽게 말하여 내 사업은 알선 및 관리 성격이 강했다. 나이 50에 처음으로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하는 처지이니 겁이 날 수밖에 없었다.



나와 친하게 지내던 일본의 바이어에게 의견을 청하니 10명 중 9명이 공장설립 아이디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공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큰 돈 투자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처럼 편하게 하라고 조언했다. 단 1명의 바이어만이 기은무역은 끈기가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를 해주었다. 참 생각이 많은 시기였다. 결국하기로 하였다. 확신은 없었지만 베트남 외에는 대안도 없었다. 모든 것을 걸고 베트남에 투자해 보는 수밖에 없었다. 방림방적이 베트남에서 경험이 많은 만큼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참고를 하기로 하였다. 방림방적 베트남법인은 하노이 북쪽 푸토성에서 국가공단으로 처음 개발한 투이번 공단에 위치해 있었다. 말이 공단지지만 그냥 거대한 공터라고 불러도 될 것같이 황량한 모습이었다. 2002년 당시 방림방적 베트남 법인장과 함께 푸토성 인민위원회를 찾아가서 투자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이 공단의 한 블록 전체를 공장부지로 확보하게 되었다. 이 블록은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250m였으니, 면적이 62,500㎡였다. 거의 2만평에 달하는 대형 부지였던 것이다. 부지위에 담벼락을 세웠는데 담벼락길이만 1km에 달했다. 그렇게 부지도 확보하고 투자 허가도 받게 되어 공장건설을 진행했는데 시작부터가 쉽지 않았다. 담벼락을 세우고 며칠 지나지 않아 열대성 폭우가 몰아쳤는데 그 비에 한쪽 담벼락이 모두 무너져 버린 것이다. 알고 보니 공장부지가 평평한 것이 아니고 북쪽과 남쪽 지면의 높이차이가 5m가량 났었는데 이 차이 때문에 한쪽으로 물이 몰렸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부지 내 배수로부터 만들었어야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공장 설립 당시 한 그루당 500동씩 주고 심었던 망고 나무>



공장 기초공사의 경우도 굴착기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손으로 파는 방식이었다. 건설업자가 작업자를 불러 모아서 했는데 대낮에는 더우니 보통 해가 진 저녁에 작업을 하곤 했다. 그런데 전문 작업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어린 꼬마아이들도 함께 나와서 직접 손으로 땅을 파는 수준이었다.

<다음호에 2탄이 이어집니다>



이랜텍,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이랜텍베트남 조장현 법인장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베트남비즈니스뉴스에서는 삼성의 주력 협력사인 이랜텍베트남을 방문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케이스부터 전자담배 케이스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랜텍베트남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고 올해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이랜텍베트남 탐방 이모저모를 지면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장님! 먼저 이랜텍은 어떤 회사 인지 와 베트남 법인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베트남비즈니스뉴스 독자 여러분! 이렇게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랜텍은 1978년 설립된 한국회사이구요. 삼성전자 관련된 스마트폰, TV 부품, 그리고 SDI 관련된 배터리 부품을 주로 생산해온 협력사입니다. 최근에는 LG 관련해서 LG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KT&G와 협업하여 전자담배 관련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9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나름 글로벌 한 기업이구요. 베트남에 3개법인, 인도에 2개법인, 중국에 2개법인을 가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면서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잘 하고 있는 회사이며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세계 어느지역에서라도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믿음직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랜텍베트남은 본사가 100%투자하여 설립하였으며 2010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출 및 배터리 관련 사업을 위해 진출하였습니다. 베트남내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90여개 협력사 가운데 핵심 협력사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케이스, 배터리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현지 공헌활동 등도 활발히 하고 있어 고객사 및 지역사회에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규모는 법인직원수가 5,000여명이고 협력사 직원수가 5,000여명이며 매출규모는 약 3,500억원 입니다.

이랜텍베트남 생산제품의 특징점으로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는 스마트폰에 외관 및 색상을 좌우하는 사출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고 색상을 입히고 여러 기능(안테나 기능 등)을 추가하여 반제품 형태로 납품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비즈니스이구요. 또 금속케이스를 장착한 고급형 스마트폰은 알루미늄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공정도 수행하고 있구요. 그 다음으로는 배터리, 무선충전기 등도 생산하고 있지요. 종합하면 저희는 플라스틱 사출 관련된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배터리 회로기술 및 금속가공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40여년간 거래하면서 여러 기술들을 특허 시킨 것이죠. 이를 기반으로 전자담배 관련된 비즈니스도 진출하였지요. 참고로 전자담배는 KT&G와 협업하여 필립모리스 유럽시장에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고객사에서는 제품 컨셉이 완료되면 3개월 이내에 양산이 시작되거든요. 굉장한 속도죠. 오랫동안 이런 빠른 대응력을 연마하다 보니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고객사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배터리(스마트폰, 노트북 등)관련 사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배터리관리기술(BMS)도 갖추고 있구요. 인도에서는 전기오토바이용 배터리 사업도 하고 있고 본사에서는 ESS(에너지저장장치)도 생산하는 등 베트남내 배터리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망으로는 1~2년내 이랜텍베트남이 베트남내 배터리 생산수출 기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랜텍베트남의 경우는 어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우리 기업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베트남내 스마트폰 관련기업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코로나사태로 피해를 본 것 보다는 수혜를 받은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큰 충격을 주었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비교적 청정지역의 위치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이 불가했던 물량을 더 많이 받아들 수가 있었지요. 즉 타 국가의 어려움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았던 시기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북부 공단지역에 코로나가 번지는 5~6월이 고비였었는데요. 봉쇄하는 지역도 있었고 방역조치 때문에 직원이 20% 밖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데 저희의 경우 행정구역상 하노이내였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관리에 용이한 점이 있었구요. 결과적으로 거의 일년 내내 봉쇄나 조업중단 없이 생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 혹은 축소하면서 저희 물량이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물량은 다른 협력업체를 발굴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소화했었지요.

협력업체를 급하게 수소문하셨겠네요

작년 5, 6월 박닌성, 박장성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의 조업이 축소됐었는데요. 저희는 그 소식을 접하며 하이퐁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L사가 휴대폰사업에서 철수하면서 혹시라도 관련 L사 협력사 중에 여력이 있는 기업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였지요. 다행이 좋은 기업을 만나게 되어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이후 베트남 정부에서 근로자 출근제한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기억하시겠지만 바파이썸(3 tai cho)라고 하여 한곳에서 먹고, 자고 일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었지요. 공장 인근인 하노이시 메링현 거주 직원만 출퇴근이 가능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회사에서 먹고 자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홍역을 치렀지요.

저희 직원 5,000명 중에 1,500명이 회사내 숙식 대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 중 1,300명이 사내기숙사에 입소를 하였고 6주간 합숙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급하게 근처 빈건물을 임대하여 한 층을 임시기숙사로 만들었는데요 이 빈 건물 한 층에 텐트를 1,000개 설치했지요. 주야간 기준 2,000명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텐트를 설치하고 매트리스를 깔고 샤워시설을 설치했지요. 호치민에서 비슷한 방역조치를 먼저 했었는데 저희가 이를 보고 빠른 준비를 한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전쟁 같은 6주를 보냈지요. 방역조치도 수시로 변경될 때여서 과연 조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또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죠. 사실 바파이썸 라는게 전쟁 때 하던 방식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와 싸우는 모습이 인상깊었는지 베트남 VTV에서 작년 9.16일 저희 회사를 취재해 가기도 했습니다.



<VTV에 소개된 이렌텍베트남의 코로나 분투기>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결과적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한 시기였어요. 법인 설립 후 최대 매출이었는데요. 연간기준, 월기준, 분기기준 모두 최대의 실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거네요. 직원들하고 화합이 잘 되셨나 봅니다.

네. 지금도 직원들 보면 고맙고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집에서 생활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것도 어느 날 일요일 오후에 갑자기 조치가 시행되어 저희도 부랴부랴 사내기숙사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했었는데요. 무려 대상직원의 80%가 입소하였습니다. 사실 50%만 되어도 높은 수치거든요. 80%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흔쾌히 동참해 주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숙박시설에서부터 세면도구, 샤워시설, 탈수기 심지어 세수대야까지 구비하는 등 모든 면에서 최대의 지원을 했고 코로나지원금도 지급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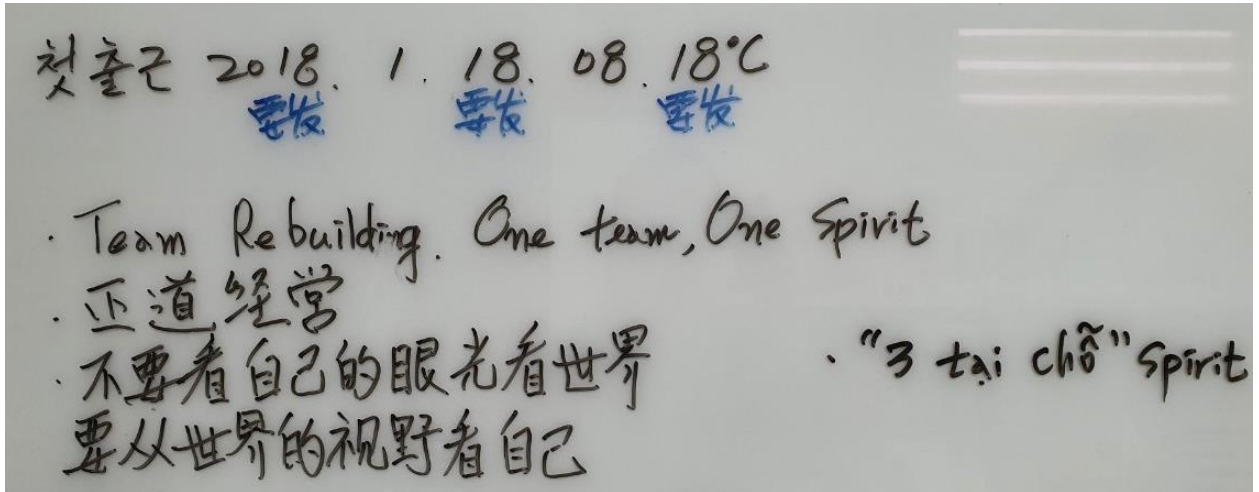
그런데 이런 방역비용이 부담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직원들의 숙식비용이나 PCR검사 비용이 부담이 되는건 사실이죠.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고객사나 베트남 당국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우선은 저희 보다 더 어려운 기업과 지역사회를 위해 저희가 하노이 메링현에서 제일 먼저 백신펀드에 기부 했거든요. 도합 10억동(약 5,000만원)이었구요. 그 밖에도 지역사회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메링현 인민위원장님하고 관계가 친밀해 진 것 같아요. 인민위원장님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격려도 해 주시기도 했죠.

작년 8월즈음에는 메링현에서도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인민위원회에서 메링현에서 출퇴근 하는 나머지 3,500명 직원들도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생산중단이 될 수 밖에 없는 철령한 순간이었죠. 코참을 통해 탄원서도 내고 여러 조치를 했었고 저 스스로도 면담요청을 수없이 했었죠. 일요일 아침에 어렵게 인민위원장과 면담이 성사가 되었고 출퇴근 직원들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등 더 방역에 힘쓰는 조건으로 3,500명 직원의 기숙사 입소는 면제를 받는데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드라마 같은 일이죠.



<이랜텍 법인장실에 적힌 “3 tai cho정신”>



법인장님 책상앞에 걸린 화이트보드에도 “3 tai cho 정신”이라는 글귀가 있네요. 이 역시도 코로나 극복과 관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같은 뜻(One Team, One Spirit)으로 합심해 싸우면 결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정도경영이라고 적은 이유는 어렵다고 편법을 쓰지 말고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구요. 그 아래 적힌 한자 글귀는 “자기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세계의 시각으로 보자”라는 뜻입니다. 맨 위에 적은 “첫 출근 2018.1.18.08. 18°C”는 제가 4년전 첫 출근할때가 2018년 1월 18일 8시였고 그날 온도가 18도 였거든요. 그런데 18을 중국어로 발음하면 “야오 빠”인데 이게 발전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첫 출근이후 계속 발전하자라는 각오입니다.

한국에 계신 베트남 관심기업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베트남 사람들은 참 젊습니다. 나이도 젊지만 마인드도 젊어요. 학습열의도 높고 습득력도 뛰어납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비용 측면에서 많은 메리트가 있는게 사실이구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스마트폰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산업에서도 이러한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구요. 다만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는 계속 고민하셔야 합니다. 베트남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베트남에서 어떻게 다른 기업들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만 되신다면 비즈니스 기회는 아주 풍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산업 부동산 계약에 대한 법적 쟁점 (공단토지 계약을 중심으로)

법무법인JP 하노이사무소 한국변호사 전현우
 bhsjun@jplawvn.com | (84-4) 3724 5201~3

1. 들어가며

Covid-19로 인해 주춤했던 베트남 투자가 최근 코로나 종식의 움직임에 따라 점차 재개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베트남은 코로나 방역을 목적으로 비자 발급의 제한, 정기항공편 운행 금지 정책 등으로 인해 해외투자자들의 베트남 시장 접근이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정기항공편 운행을 재개한데 이어, 3월중으로 해외 입국 제한을 완화할 것을 발표함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에도 투자 문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 부동산, 엔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2010년 중반 이후 한국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적극 진출하게 된 계기는 바로 제조업 투자가 그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칼럼은 제조업 투자의 첫걸음인 입지조사 및 토지계약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 입지 선정시 검토 사항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류의 일부로 프로젝트 위치와 관련된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시는 경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이 베트남 투자자들에게 가장 먼저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 또한 바로 입지선정에 관한 법률자문입니다.

즉, 베트남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은 프로젝트의 신청에 앞서 부지를 어느 곳으로 정해야 할지, 지역별 차이점은 어떠한지, 인력수급은 용이한지, 임대가격은 어떠한지, 교통 및 물류는 어떠한지, 공단과의 협력은 용이한지에 대한 정보가 가장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있지 아니하기에 단순 입지조건만을 바라보고 명확한 법률검토 없이 프로젝트 부지를 선정하는 경우, 가계약 이후 법률검토 결과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프로젝트 개시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투자프로젝트 신청이 불가능한 부지여서 페널티를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입지를 검토하시는 경우 해당 부지가 적법한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고, 진행하고자 하시는 프로젝트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산업용 토지 계약 절차

한국과는 달리 베트남에서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조법인이 공장을 직접 건설할 토지를 찾아 계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를 구매한다 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산업용 부동산 사용권을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빠른 이해를 위하여 토지 구매, 매입 등의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정확히 “토지사용권 취득”에 해당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제조목적의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산업공단 토지를 찾아보시게 됩니다. 이러한 공단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할 때 체결하는 계약은 법적으로는 공단이 국가로부터 임대한(Lease) 토지를 전대(Sub-Lease)하는 토지 전대차 계약입니다. 토지 전대차 계약이므로 투자자는 공단의 권리에 종속하여 그 사용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공단의 마스터플랜에 적합한 투자만이 허용 가능하며, 공단이 승인 받은 필지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투자자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기간 또한 공단이 보유한 기간에 따릅니다.

공단과 토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는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는 베트남에 토지를 구매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먼저 ① 한국 본사와 공단이 가계약(In Principle Agreement, MOU)을 체결한 뒤 이를 바탕으로 ② 투자등록증(또는 투자허가서,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IRC) 및 ③ 사업자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 ERC)을 발급받아 법인을 설립한 뒤 ④ 신규 설립된 베트남 법인과 공단이 정식계약(Official Sub-lease Contract)을 체결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를 계약하게 됩니다.

4. 토지 권리 확인

토지 계약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해당 토지 및 계약주체에 대한 법률검토일 것입니다. 즉, 토지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공단이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베트남 부동산법 제37.1조 및 토지법 제188조는 토지를 판매(정확히는 Sublease)하려는 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1) 대상 토지에 대해 적법하게 발급된 토지사용권증서(LURC)
- 2) 토지에 관한 분쟁의 부존재
- 3) 토지사용권 증서가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닐 것
- 4) 토지사용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상기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토지 구매를 진행하시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토지를 판매, 분양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토지구입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부지가 위 첫번째 조건인 1) 토지사용권증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몇몇 공단의 경우 토지사용권증서가 아닌 인민위원회의 사용결정문 또는 프로젝트 승인결정문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일 뿐 엄밀히 말하면 해당 권리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 체결은 부동산법 제8조1항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차후 프로젝트 신청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5. 토지계약의 가장 중요한 절차 : 가계약 체결

앞서 안내드린 토지 계약 절차에 따르면 한국 본사와 공단이 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토지 권리 취득에 관한 첫 계단을 밟게 됩니다. 베트남 실무상 공단(임대인)과의 가계약 체결은 단순한 가계약이라는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본계약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일 가계약 협상을 실패하신 경우 본계약시 더욱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시작하셔야 하므로 때론 본계약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위 공단 토지 구입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① 공단과 가계약을 체결 하고, ② 해당 부지를 바탕으로 투자 허가를 취득하여 법인을 설립한 뒤 ③ 정식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한국의 가계약과는 달리 이를 바탕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가계약 협상을 소홀히 하고 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단 측이 불합리한 조항 삽입을 요구할 시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필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공단 측이 내용추가를 거부한다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사업계획에 따른 절차진행을 고려해야 하며, 이미 해당 토지를 바탕으로 투자승인 등 법인설립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를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 내에 자본금납입을 진행해야 하므로 부득이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6. 주요 계약 검토 조항

본 칼럼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금지급일정 및 양도관련 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대금지급 스케줄 관련

모든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대금지급과 관련된 계약 위반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며, 계약 내용에 따른 각종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대금지급 스케줄의 준수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공단측에서 제시한 토지임대차 가계약서에 포함된(MOU 또는 IPA: In principle Agreement) 대금지급 스케줄의 한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매수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부담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Installment 1: Within 14(fourteen)days commencing from the signing date, the Lessee will pay the Lessor 80% of the total infrastructure rental,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80% 지급]
- Installment 2: Within 45(forty five)days commencing from the signing date, the Lessee will pay the Lessor 15% of total infrastructure rental. [계약 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15%대금 지급]
- Installment 3: Within 07(seven)days since the Lessor has made notification of handing-over the Land, the Lessee will pay the remaining infrastructure rental.
[토지 인도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5%대금 지급]

위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스케줄은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80%를 지급하고(1차지급), 45일 이내에 15%를 지급하고(2차지급), 토지 인도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5%를 지급한다(3차지급)는 내용으로 매우 간략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금지급 스케줄은 우선 보증금개념인 1차 대금의 지급비율이 과다하며, 2차 대금지급은 45일 이내로 이루어 져야 하는 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기간입니다. 특히 투자허가가 지연되거나 혹은 투자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위와 같이 특정 기일을 지정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MOU는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시 담당 관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투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투자등록증 발급은 일반적으로 약 15영업일 정도가 소요되며,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3영업일 정도가 소요되나, 실제로 서류준비를 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기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공증, 영사확인 등을 진행하는 기간을 포함하면 본 사례에 기재된 45일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토지양도시 수수료 부과 관련

토지 대금을 일시납입한 투자자는 해당 토지사용권 및 토지상에 존재하는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구매자로서는 적법하게 자신의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토지매각 절차를 살펴보면, 법적으로는 공단이 국가로부터 임대(Lease)한 토지를, 투자자가 공단으로부터 전대(Sublease)한 것이므로 공단과의 토지전대계약을 종료하고 매수인이 공단과 새로운 토지전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임대인(공단)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며, 이러한 점에 토지계약상 이러한 이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The Lessee have to pay the Lessor management cost, all the cost for transferring land sublease contract and the cost equal to 5% total value of the contract for transferring land leasing right and assets in the land lot between the Lessee and their transferee.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용, 토지 전대계약 양도와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임차인과 그 자산 양수인과 체결하는 토지사용권 및 토지상 자산 양도 계약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토지매수인이 자신의 토지 및 토지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비용 및 토지양도와 관련한 모든 비용, 자산가치의 5%에 해당하는 총 비용을 공단 측에 지불해야 하는 바, 이러한 계약은 차후에 예측가능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관리비용 및 토지양도와 관련한 ‘모든 비용’이라는 표현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차후 지불해야 하는 비용항목 및 해당 비용이 예측 불가능하므로 공단 측이 예상하지 못한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토지 양도를 위해서는 해당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권 및 토지상 자산 양도 계약의 5%에 해당하는 총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불리한 것은 이와 같은 조항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가 토지상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요청할 권리 자체가 계약서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투자자는 계약에 따라 양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오롯이 호의로서 공단에게 해당 계약의 양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즉, 공단이 이러한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 이후 지가 상승에 대한 차익을 투자자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7. 마치며

이번 칼럼에서는 제 업무경험상 베트남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찾으시는 법률자문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등기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권리자로부터 해당 권리문서를 전달받아 검토해야 하기에 많은 주의를 필요 합니다. 또한 베트남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대한 표준 서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정해집니다. 임대인(공단)의 경우 여러 계약을 체결하며 어떠한 내용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이해하고 있기에,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칼럼에서 살펴본 두가지 주요 사항 외에도 설명 드리지 못한 법률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분들은 권리보호 및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시어 계약 내용을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2022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2021년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0년의 2.91%보다 소폭 하락한 2.58%이었다. 다행히도 2022년 1월에는 코로나로 휴업했던 기업의 영업 재개가 전월 대비 353%가 증가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베트남의 예상 GDP 성장률에 대해, 세계은행은 5.5%, 국제 신용평가 기관 피치(Fitch)는 7.9%로 전망하는 등 여러 전문 기관들은 올해는 베트남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전망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2021년 여름경 베트남에서의 급작스러운 코로나 유행 때 장기간의 도시 봉쇄를 경험한 외국인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도 고려해 올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법은 현실의 요구에서 시작하고, 그 법을 적용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발전하는 것 같다. 2022년 3월 1일 발효된 투자법, 공적 투자법, 민관합동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입찰법, 전기법, 특별 소비세 및 민사 판결 시행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여러 조항을 한 번에 개정·보완하는 법(Law 03/2022/QH15)의 주목할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는 주택법 23조 1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의 투자 및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 형태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간을 마련했다. 또,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된 탄소 중립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혜택을 부여하는 등 관련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그리고 강화된 관리·감독 및 처벌

쯔엉 꾸옥 끄엥(Truong Quoc Cuong) 보건부 차관이 보건부 의약품 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때 가담했던 가짜 항암제 수입허가와 관련한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021년 말경 기소되었다. 또, 비엠테기술(Viet A Technology) 회사의 코로나 진단키트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를 기재하고, 가격 조작, 입찰 비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여러 지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압수수색을 받고, 관련 비리 혐의자들이 여럿 기소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 유통과 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하여,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시행령 98/2021/ND-CP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의료기기의 도소매 가격은 공시해야 하고, 보건부(MoH) 웹사이트에 공시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보건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대한 시행령 117/2020/ND-CP 등을 보완’하는 시행령(124/2021/ND-CP)에서는 의료기기 가격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 조항(제78a조)을 추가하여, 의료기기 가격 규정 위반 시 최대 2천만 동(한화 약 1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주목 할만한 점이다.

베트남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던 2021년, 베트남 정부에서는 외국 기업들에 반강제적으로 백신 구매비 기부를 요구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모든 재베트남 한국 교민(僑民)이 백신을 접종하고도 남을 정도인 139만 회분의 백신을 베트남에 공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이 우선 접종 대상이다 보니 재베트남 교민이 백신을 맞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나마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비용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접종 전 PCR 검사나 의사 진찰을 이유로, 외국인에게는 유료로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베트남의 현실을 보면, 실제로 법이 얼마나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부패 방지

부패방지법 시행에 관한 시행령(Decree 59/2019/ND-CP)의 여러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시행령(Decree 134/2021/ND-CP)이 2022년 2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심각한 부패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전 규정은 5년 이상 20년 이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지속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좋다. 다만 현실에서는 법을 집행하려는 의지와 법의 해석과 적용이 너무 느슨해, 법을 빌미로 오히려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법에서, 투자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재정 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실무 처리 시 담당 공무원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해서 법적 제도를 구축하고,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예: 인허가)에서 이를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5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베트남에서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됐고, 뒤이어 2월 1일에는 한국에서도 발효되었다. 농산물 등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RCEP을 계기로 2022년에는 우리나라의 상품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동남아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 시장에 한국 기업과 한국 상품이 더 많이 진출하기를 기대해본다.

[일부 내용은 한국의 법률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베트남 투자실무 가이드(2021년 개정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트남은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 국가입니다. 최근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필요성 증대 및 미-중 무역분쟁에 기인한 여러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992년 수교한 이래 양국 교역 규모는 29년간 141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92년 4.9억 달러→'20년 691억 달러) 특히 2022년 12월은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비즈니스 포럼 개최에 더불어, 2023년까지 교역 규모 천억 달러 달성을 위하여 양국 산업공동위를 중심으로 교역 촉진을 위한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바, 베트남과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對베트남 투자를 살펴보면, 2000년대 농·식품, 의류·섬유와 같은 1차 산업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주로 진행되다가, 북부 하노이를 중심으로 전자제품·디스플레이의 대표기업인 삼성과 LG가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하며 진출 업종이 다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전자제품, 건설, 석유·화학 분야 등 다양한 산업군의 진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R&D 투자뿐만 아니라 금융, 제약 산업 분야에 대한 M&A를 통한 투자 진출에 대한 관심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현재 약 8,800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현지 기업 및 진출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KOTRA는 베트남의 최근 변화하고 있는 투자환경을 반영하여 투자실무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투자실무 가이드(2021년 개정판)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내 보고서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안내글로 이동합니다.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2021년)

산업연구원(KIET) 김동수 선임연구위원, 사공목 연구위원, 신윤성 연구위원, 한정민 연구위원

- 한국과 베트남이 1992년 수교한 이후 약 29년이 지났으며, 2008년 삼성전자 휴대폰 제조의 베트남 진출부터 한·베 교역은 물론 베트남으로의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
- 반면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경영환경 등의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향후 연례화하여 기초통계를 확보할 필요
- 산업연구원은 2020년 “중국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최근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공급망의 재편 및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 심화 등에 따라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 증가로 본 사업을 추진
- 산업연구원이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기획·추진하였고,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하노이사무소가 공동주관 형태로 조사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베트남코참이 실질적인 조사 업무를 담당
- 실태조사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
- 처음으로 실시된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는 응답기업의 수가 217개에 불과하여 업종별 분석 등에서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응답률 제고가 필요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2021년\)](#)

[KIET 홈페이지내 보고서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안내글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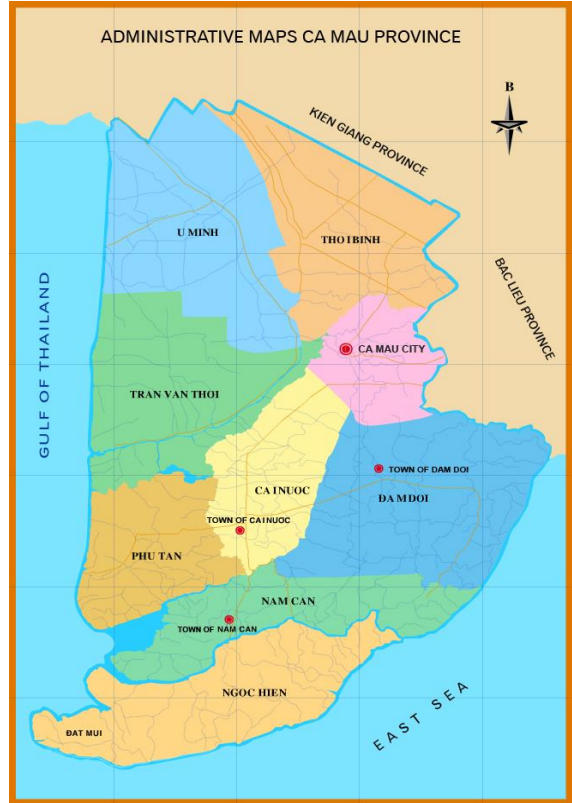
베트남 남부 유망 투자지 - 까마우성

□ 까마우(Ca Mau)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5,331.6km² ▪ 인구: 1,194,476명('21년) ▪ 도시거주 비율: 22.75%('21년)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까마우성은 베트남 최남단 지역에 위치해 있음. 본토 외에도 까마우성은 혼콰이(Hon Khoai), 혼추어이(Hon Chuoi), 혼브엉(Hon Buong) 및 혼다박(Hon Da Bac) 등의 섬이 있으며 섬의 총면적은 약 5km²임 ▪ 까마우성은 V자의 모양으로, 3면이 바다와 접해 있음. 북쪽으로는 끼엔장(Kien Giang, 63km)성, 동북쪽으로는 박리에우(Bac Lieu, 75km)성, 서쪽으로는 타이만, 동쪽으로는 남중국해와 접해 있음 ▪ 까마우성 해역은 71,000km²이상이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해역과 인접해 있음. 까마우성 해역은 동남아 국가들 해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상 경제 협력, 해양 경제 발전, 석유 및 천연자원 채굴에 유리함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1A 국도, 63번 국도, 관로(Quan Lo)-푹히엵(Phung Hiep), 호치민 로드, 남부해안 소회랑이 까마우성을 관통하고 있음 ▪ 항공: 까마우 공항에서 현재 까마우-호치민시, 까마우-하노이 노선이 있음 ▪ 해로: 까마우-남주(Nam Du)-푸꾸억(Phu Quoc) 루트가 있음
GRDP 성장률 / 1인당 GDP('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GDP 성장률: 0.92% ('21년) ▪ 성 1인당 GDP: US 2,397 달러/년 ('21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수출액('21년): US 11억 달러 / 총 수입액('19년): US 0.71억 달러 ▪ 산업별 성장률('20년): 공업/건설업(-2.3%), 서비스업(1.9%), 농수산업(4%)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건설업: 29.4%, 서비스업: 32.6%, 농수산업('21년): 33.7%
노동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내 노동가능연령 인구비율('21년): 51%
최저임금('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까마우시: VND 3,920,000=US 173 달러(2급지) ▪ 남칸(Nam Can), 까이느억(Cai Nuoc), 우민(U Minh), 쩐반터이(Tran Van Thoi): VND 3,430,000=US 151 달러(3급지) ▪ 덤저이(Dam Doi), 푸떤(Phu Tan), 응옥히옌(Ngoc Hien), 터이빈(Thoi Binh): VND 3,070,000=US 135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21.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까마우성의 총 외국인투자는 10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약 3.92억 달러 규모 ▪ (한국) 까마우성의 한국투자는 총 1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5백만 달러 규모, 까마우성에 투자한 국가들 중 4위를 차지



□ 투자환경



○ 뛰어난 접근성 및 물류 인프라

(도로) 까마우성을 관통하는 중요 도로:

- 1A 국도
- 63번 국도
- 관로(Quan Lo)-푹히엵(Phung Hiep)
- 베트남 북부에서 남부까지 이어지는 호치민 로드[남칸(Nam Can)-뎃무이(Dat Mui) 구간]
- 베트남과 캄보디아 및 태국을 연결하는 남부해안 소회랑[(South Coastal Sub-corridor) 까마우성을 관통하는 구간의 길이는 52km]

(항구) 남칸(Nam Can) 항구는 현재 건설중이며 5,000DWT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 혼콰이(Hon Khoai) 종합항구는 전략적인 프로젝트로서, 완공시 250,000DWT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

(수로) 주요 수로인 호치민시-남칸(Nam Can)은 377.43km이며 까마우-컨터(Can Tho)-호찌민시를 연결하며 300톤 바지선의 이동이 가능함. 254km가 넘는 해안선은 해양 경제, 물류 및 풍력 발전에 적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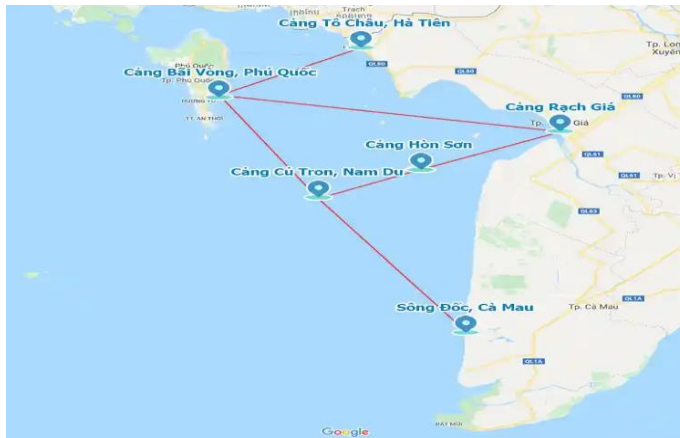


○ 관광 및 풍부한 천연자원

(관광)

100,000ha가 넘는 멜라루카 숲과 맹그로브 숲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생물권 보호구역 및 세계 람사르 유적지로 인정되었음. 까마우곶 국립관광지는 2030년까지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건설 및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까마우성의 해역에는 혼콰이 섬, 혼추어이, 혼다박 및 호치민 로드의 종점이 있음. 까마우성은 2019년 이후 해안에서 섬까지 연결하는 해상 관광 경로를 개방하며 섬 관광을 개발하고 다른 지방과 연결하는 원동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음.

현재 까마우-남주-푸꾸억 해로를 개척하고 있으며, 태국 및 캄보디아와의 공동 관광상품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기획하고 있음.



까마우성의 문화는 독특하며, 바다 및 섬 관광, 생태관광, 휴양관광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상품 개발 요소를 가지고 있음.



까마우곶 국립관광지



우민하(U Minh Ha) 국립공원



혼박(Hon Bac)섬



까마우 수상시장



(천연자원)

- 토지자원: 4개의 주요 그룹으로 나뉨

	염분토양군	산성토양군	토탄토양군	총적토군
면적	208,500ha, 자연토지 면적의 40%를 차지	271,926ha, 자연토지 면적의 52.2%를 차지	8,698ha	15,483ha
주로 분포된 현	응옥히엔(Ngoc Hien), 남칸(Nam Can), 덤저이(Dam Doi), 푸떤(Phu Tan), 까이늑(Cai Nuoc)	터이빈(Thoi Binh), 우민(U Minh), 찌반터이(Tran Van Thoi)	우민(U Minh), 찌반터이(Tran Van Thoi) 두꺼운 토탄층은 주로 멜라루카 삼림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응옥히엔(Ngoc Hien) 및 푸떤(Phu Tan)

(산림자원)

까마우성의 숲은 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맹그로브를 포함한 습지림이며, 응옥히엔 현에 집중하여 분포되어 있음. 담수 맹그로브 숲은 주로 우민, 찌반터이 및 터이빈 현의 깊숙한 곳에 있음.

까마우 삼림 생태계는 희귀한 동식물종이 많고 생물학적 생산성이 높으며, 자연 보전, 과학 연구, 생태 환경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함. 이외에 혼콰이 및 혼주이 섬에도 583ha의 산림이 있음.

현재 많은 종류의 새들이 덤저이 조류 보호구, 까이늑 조류 보호구, 까마우시의 조류 보호구와 같은 많은 대형 조류 보호구에 집중되어 있음.

멜라루카 생태계는 34,600ha의 면적에 걸쳐 수로 및 토양안정화, 민물새우 및 어류양식, 꿀벌, 비단뱀, 사슴, 멧돼지 사육 등의 완충지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후를 조절하고 습지림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음. 특히 꿀벌이 풍부하여 매년 대량으로 채취할 수 있음.

(광산자원)

탐사 결과 까마우 해역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석유 매장량이 파악되며 석유산업 개발에 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우민하 숲에 약 5,000ha로 추산되는 토탄이 있으며, 연료, 미생물 유기 비료 및 기타 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음.

(해양자원)

까마우성의 해안선은 254km로 국가 해안선 길이의 7.8%를 차지함. 그 중, 동해안의 길이는 107km이며, 서해안의 길이는 147km임. 베트남의 해양경제개발계획에서 까마우성 해역은 무이딘-까마우 해역과 까마우-하띠엔 해역의 중심임. 이는 해양경제개발 분야에서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의 시장에 접근하기 용이한 이점이기도 함.

까마우성 해역은 풍부한 해산물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의 4대 중요 어장 중 하나로서 다양한 어종을 보유하고 있음. 그 중 새우, 오징어, 게, 도미, 고등어, 참돔, 병어, 그루퍼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다수의 어종을 보유하고 있음. 연안 수역에는 수출 가치가 높은 조개, 새조개, 새우 등의 수산물을 양식할 수 있음.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법인 소득세

a. 일반 공단:

- 15년간 우대 세율 10%
-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세(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b. 경제구역

- 15년간 우대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세(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c. 공통

까마우시	기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간 우대 세율 17% •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세 (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간 우대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세 (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 수입세

a. 공통(일반 공단 경우 포함)

- 고정 자산을 형성하는 화물, 기계 및 장비,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자재 및 기계 등 수입세 면제
-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식물 품종과 가축 품종 등 수입세 면제
- 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특수 기계, 장비 및 자재 등 수입세 면제

b. 경제구역(수출입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

- 비관세지역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 해외에서 비관세지역으로 수입되어 비관세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제품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a. 공통(일반 공단 경우 포함)

구분	까마우시	기타 지역
보통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건설 기간 동안(최대 3년) • 기본 건설 기간 후: 다음 7년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건설 기간 동안(최대 3년) • 기본 건설 기간 후: 다음 11년간 면제
투자 우대 분야의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건설 기간 동안(최대 3년) • 기본 건설 기간 후: 다음 11년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건설 기간 동안(최대 3년) • 기본 건설 기간 후: 다음 15년간 면제
투자 특별 우대 분야의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건설 기간 동안(최대 3년) • 기본 건설 기간 후: 다음 15년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임대기간 면제



b. 경제구역

구분	경제구역
보통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건설 기간 동안(최대 3년) 기본 건설 기간 후: 다음 15년간 면제
투자 우대 분야의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건설 기간 동안(최대 3년) 기본 건설 기간 후: 다음 19년간 면제
투자 특별 우대 분야의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임대기간 면제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2021년 12월말까지 까마우성내 총 외국인투자는 10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약 3.92억 달러가 투자 등록되어 있음.

○ 한국계 투자

2021년 12월말까지 한국투자는 1개의 프로젝트로 1.5백만 달러가 투자 등록되어 있으며, 까마우성에 투자한 국가들 중 4위임.

○ 까마우성 내 9대 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투자국	투자금액 (US 달러)
1	카이롱(Khai Long) 관광지역의 풍력 발전소(1 단계)	태국(51%)	280,894,252
2	C.P. Ca Mau 수산물 사료 가공 공장	태국	76,760,000
3	베트남-호주 첨단 초집약적 새우 양식업	호주	17,583,000
4	베트남-호주 관광지	호주	5,000,000
5	수산물 가공 공장 건설 - Gallant Ocean Viet Nam Co., Ltd	대만	4,500,000
6	응옥히엔(Ngoc Hien) 집중 어류종자 생산 지역	호주	3,000,000
7	새우 종자 생산	호주	1,904,761
8	Lotte Cinema Ca Mau	한국	1,500,000
9	수출 및 가공용 수산물 구매	일본	789,474



□ 공단 현황

○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 (ha)	주요 내용
1	화중(Hoa Trung) 공단	2016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분야: 수산물 / 서비스 / 양식업 지원 산업 / 수산물 채취
2	카잉안(Khanh An) 공단	2015	235.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분야: 농수산물 가공 / 기계 산업 / 가축 사료 가공 및 비료 / 전자산업, 섬유, 소비재 생산 / 임산물 가공 / 천연가스 액화 산업 / 건축자재 생산 산업
3	남칸(Nam Can) 경제구역	2010	10,801.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까마우성 남쪽의 교역 허브임 다양한 분야: (비관세 지역) 산업, 상업, 서비스 (관세 지역) 첨단기술 양식업 / 생태 관광 서비스 / 물류센터

□ 투자 유망분야

- 첨단 기술 응용 농업
- 임산물, 수산물 가공 공장
- 어업 지원 서비스 지역 및 어선 수리 공장
- 생태 관광, 바다 및 섬 관광, 유적지 관광
- 시장 및 쇼핑몰 건설
- 인프라 및 종합 항구 개발

□ 까마우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까마우성 경제구역 관리위원회	Mr. Duong Hoai Nam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290 3540 368 Email: banqlkktcm@gmail.com Website: banqlkkt.camau.gov.vn
까마우성 기획투자청	Mr. Phan Hoang Vu (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290 3831 332 Email: sokehoachvadautu@camau.gov.vn Website: sokhdt.camau.gov.vn
까마우성 투자진흥 및 기업지원센터(IPEC)	Mr. Truong Ha Phuong Anh (부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290 3540 458 Email: ipeccamau@gmail.com Website: ipec.com.vn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2. 1. 20 기준 누계		2022. 1. 1 ~ 1.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244	77,324.90	20	4.18	481.2
일본	4,803	63,959.27	9	6.47	200.8
싱가포르	2,851	65,239.85	14	198.14	665.75
대만	2,847	35,394.90	4	1.21	57.16
홍콩	2,051	28,277.35	8	103.25	112.91
버진아일랜드(영)	882	22,054.24	2	8.45	11.75
중국	3,341	21,830.47	15	13.71	450.89
말레이시아	668	12,854.11	1	0.28	0.59
태국	648	13,023.03	4	5.89	5.96
네덜란드	380	13,541.63	-	-	0.1
미국	1,147	10,306.27	4	1.58	26.5
기타	5,780	51,805.03	22	44.79	88.1
전체 합계	34,642	415,611.05	103	387.96	2,101.71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2. 1. 20 기준 누계		2022. 1. 1 ~ 1.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598	245,982.48	23	233.01	1,238.10
2	부동산경영	1,003	62,917.39	4	111.47	472.09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77	36,245.85	1	0.84	49.17
4	호텔, 외식서비스	900	12,735.37	1	0.05	1.81
5	건설	1,772	10,828.48	3	1.02	2.22
6	도소매, 유지보수	5,614	9,119.70	30	9.92	52.5
7	물류운수	924	5,752.70	4	0.55	2.77
8	채광	109	4,900.37	1	1.98	1.98
9	교육, 양성	609	4,436.49	2	2.21	2.38
10	정보통신	2,479	4,256.30	15	1.48	7.84
11	과학기술, 전문활동	3,815	4,121.68	16	1.96	21.66
12	농, 임, 수산	517	3,729.94	1	1.3	4.67
13	예술 오락	137	3,392.34	-	-	0.15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2	2,908.25	-	-	-
15	의료와 사회복지	152	1,741.34	-	-	-
16	행정, 지원 서비스	522	991.57	1	0.1	221.47
17	금융, 은행, 보험	80	810.73	1	22.05	22.91
18	기타서비스	145	729	-	-	-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34,642	415,611.05	103	387.96	2,101.71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9	2020	2021	2022.1
수 출	2641.8	2826.5	3363.1	308.4
수 입	2530.7	2627	3322.3	294.4
무역수지	111.1	199.5	40.8	1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1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1,378	51,183	57,537	4,503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35,925	44,576	50,828	4,109
기계/플랜트 및 부품	18,303	27,193	38,344	3,499
섬유/직물제품	32,850	29,809	32,753	3,571
신발류	18,320	16,791	17,751	139
원목 및 목제품	10,647	12,371	14,809	1,549
철강제품	4,210	5,258	11,795	424
수송수단 및 부품	8,505	9,090	10,616	1,015
수산물	8,543	8,412	8,886	827
원사(Yarn)	4,176	3,736	5,612	473
기 타	71,332	74,235	87,379	10,735
합 계	264,189	282,654	336,310	30,84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1
전자제품 및 컴퓨터	51,353	63,971	75,440	7,120
기계/플랜트 및 부품	36,748	37,251	46,296	3,927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4,615	16,645	21,434	2,009
의류(원단)	13,276	11,875	14,324	1,392
플라스틱 원료	8,991	8,397	11,685	1,018
각종 철강	9,507	8,066	11,523	1,019
기타 비금속	6,385	6,052	8,611	729
플라스틱 제품	6,538	7,274	7,959	702
화학제품	5,419	5,741	7,627	763
화학물질	5,128	5,016	7,735	746
기 타	95,110	92,412	119,600	10,024
합 계	253,070	262,700	332,234	29,44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1
1	미국	47,526	61,347	77,077	96,293	9,737
2	중국	41,268	41,414	48,905	56,009	3,908
3	한국	18,205	19,720	19,107	21,945	1,971
4	일본	18,851	20,413	19,284	20,128	2,040
5	홍콩	7,955	7,156	10,437	11,996	875
6	네덜란드	7,076	6,881	6,999	7,686	837
7	독일	6,869	6,555	6,644	7,286	831
8	인도	6,542	6,674	5,235	6,259	713
9	태국	5,494	5,272	4,917	6,161	556
10	영국	5,776	5,758	4,955	5,765	549
	기타	77,921	82,999	79,094	96,782	8,827
	합계	243,483	264,189	282,654	336,310	30,84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1
1	중국	65,438	75,452	84,187	109,874	10,758
2	한국	47,497	46,935	46,895	56,155	5,095
3	일본	19,011	19,526	20,341	22,648	1,674
4	대만	13,228	15,173	16,701	20,772	2,048
5	미국	12,753	14,365	13,713	15,270	1,057
6	태국	12,023	11,656	10,968	12,564	1,002
7	말레이시아	7,450	7,291	6,575	8,148	797
8	오스트레일리아	3,984	4,456	4,677	7,946	683
9	인도네시아	4,918	5,703	5,382	7,587	485
10	인도	4,147	4,538	4,435	6,950	674
	기타	46,238	47,975	48,826	64,320	5,176
	합계	236,687	253,070	262,700	332,234	29,44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1
수출	48,629(1.8)	48,178(-0.9)	48,510(0.7)	56,729(16.9)	5,301(14.2)
수입	19,632(21.4)	21,071(7.3)	20,579(-2.3)	23,965(16.5)	2,311(13.6)
무역수지	28,997	27,107	27,931	32,763	2,990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	2022.1
반도체	10,939(18.5)	10,730(-1.9)	11,501(7.2)	14,026(22)	1,387(29.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909(20.9)	7,970(-10.5)	9,552(19.9)	12,050(26.1)	1,168(7.2)
합성수지	1,659(15.1)	1,624(-2.1)	1,615(-0.6)	2,415(49.5)	296(73.7)
무선통신기기	2,631(-19.9)	2,932(11.4)	3,460(18)	3,315(-4.2)	269(-13.9)
기구부품	2,332(-10.7)	2,230(-4.4)	2,241(0.5)	2,405(7.3)	195(-6.3)
석유 제품	1,976(-0.6)	2,196(11.2)	1,196(-45.5)	1,157(-3.2)	120(11.5)
철강판	1,049(6.5)	1,157(10.4)	1,052(-9.1)	1,267(20.4)	101(7)
플라스틱 제품	1,205(4.6)	1,210(0.4)	1,115(-7.8)	1,174(5.3)	98(-1.3)
자동차부품	474(23.3)	668(40.9)	673(0.8)	924(37.3)	98(48.2)
편직물	1,107(-1)	996(-10)	851(-14.6)	931(9.4)	76(14.9)
기타	16,341	16,465	15,255	17,065	1,493
합계	48,622	48,178(-0.9)	48,511(0.7)	56,729(16.9)	5,301(14.2)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	2022.1
무선통신기기	4,838(22)	5,691(17.6)	4,980(-12.5)	5,579(12)	473(-5.5)
의류	3,570(24.2)	3,646(2.1)	3,145(-13.7)	3,393(7.9)	316(17.5)
컴퓨터	539(-3.7)	679(25.9)	1,270(87.1)	1,659(30.6)	285(17.1)
신변잡화	980(23.1)	1,053(7.4)	1,029(-2.2)	984(-4.4)	110(19.2)
목재류	793(55.1)	657(-17.1)	632(-3.9)	755(19.5)	83(29.7)
산업용 전기기기	417(31.5)	479(14.8)	574(20)	725(26.2)	70(19.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37(88.4)	1,197(5.2)	1,027(-14.2)	876(-14.7)	60(86.3)
기구부품	445(-10.4)	512(15.1)	481(-5.9)	624(29.6)	55(5.7)
반도체	396(5.8)	471(19.1)	561(18.9)	750(33.8)	54(25.6)
영상기기	364(-9.1)	356(-2)	406(14)	460(13.2)	52(2.7)
기타	6,164	6,331	6,474	8,161	753
합계	19,643(21.4)	21,072(7.3)	20,579(-2.3)	23,966(16.5)	2,311(13.6)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1~2022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1년(연간)	%	7.6	5.6	3.1	3.7	2.6	
	2021년 3Q	%	7.1	7.1	△4.5	5.0	△6.2	
	2021년 4Q	%	6.1	7.7	3.6	3.5	5.2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1년(연간)	-	121.7	N/A	117.9	N/A	4.8
		2021년 12월	-	132.3	24.8	126.4	N/A	8.7%
		2022년 1월	-	N/A	26.5	N/A	N/A	2.4%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1년(연간)	-	50.7	N/A	112.1	51.7*	N/A
		2021년 12월	-	50.7	51.8	115.6	53.5	52.5
		2022년 1월	-	50.6	50.0	N/A	53.7	53.7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1년(연간)	-	102.1	N/A	90.5	98.4*	N/A
		2021년 12월	-	104.4	N/A	97.2	118.3	N/A
		2022년 1월	-	N/A	N/A	N/A	119.6	N/A
	소매판매	2021년(연간)	-	90.7	N/A	135.5	198.1*	3.8%
		2021년 12월	-	111.9	2.1%*	146.0	216.3	1.1%
		2022년 1월	-	N/A	N/A	N/A	211.0	1.3%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1년(연간)	%	2.3	4.5	2.5	106.5*	1.8
		2021년 12월	%	4.0	3.2	3.2	107.7	1.8
		2022년 1월	%	N/A	3.0	N/A	108.3	1.9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1년(연간)	%	118	N/A	5.6	N/A	9.2(누계)
		2021년 12월	%	N/A	N/A	8.7	N/A	9.2(누계)
		2022년 1월	%	N/A	N/A	N/A	N/A	4.2(누계)
고용	실업률	2021년(연간)	%	2.6	N/A	4.6	N/A	4.0
		2021년 3Q	%	2.7	8.0	4.2	N/A	3.9
		2021년 4Q	%	2.5	6.9	N/A	N/A	3.6
무역	수출증가율	2021년(연간)	%	19.1	N/A	26.0	41.9	19
		2021년 12월	%	28.0	7.1	39.2	35.3	24.8
		2022년 1월	%	22.1	N/A	23.5	25.3	1.6
	수입증가율	2021년(연간)	%	20.4	N/A	23.3	38.6	26.5
		2021년 12월	%	35.4	38.3	23.6	47.9	14.6
		2022년 1월	%	28.3	N/A	26.4	36.8	11.5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①

Meet Korea 2022 개최 안내

- 2022.2.24., 대사관,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 개최일자 및 장소

- 일시 : 2022. 3. 24(목)~26(토)
- 장소 : 베트남 타잉화성 빈펄 호텔(행사 및 숙박)
- 3.26일은 친선운동행사(FLC) 혹은 산업시찰(응이손경제구역) 중 선택

□ 사업내용

- 사업성격 : 베트남 홍강델타·북중부 12개 성시의 책임자급(당서기 혹은 성장급)인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한-베트남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한국기업들과 투자 상담기회를 갖는 대규모 G2G, B2G 행사 (컨퍼런스, G2G 및 G2B상담, 전시 등)

<타잉화성·홍강삼각주·북중부의 위치 및 참여지방성 명단>



○ 북중부(5개 성)

- 타잉화성
- 응에안성
- 광찌성
- 광빈성
- 하명성

○ 홍강델타(7개 성)

- 하노이
- 광닌성
- 닌빙성
- 하남성
- 남딘성
- 하이퐁(직할시)
- 타이빙성

○ 추진의의

- 2022년 베트남 정부가 외국 정부와 개최하는 최초의 대형행사(약500명)
(베트남 최고위인사인 팜 민 쯌 총리, 부이 타잉 선 외교부장관 참가 추진중)
- 베트남 홍강델타 북중부 12개 성의 최고위 관료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며 금년 한-베트남 관계에 있어 최대급 B2G 행사
- 금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코로나 이후 한-베트남 협력 강화를 위한 대표행사의 성격



②

- 참석규모 : 약 500명
 - 베트남측(300명) : 팜 민 쩌 베트남총리, 부이 타잉 선 외교부 장관, VCCI회장(장관급), 12개 성시의 책임자 및 실무자 등 총 300여명
 - ※ 팜 민 쩌 총리가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면 부총리가 대참 예정
 - 한국측(200명) : 대사관, 코트라 등 공공기관 30여명, 현지진출 대표 기업 및 성별 네트워크상담 참가희망기업 170여명

□ 주요 행사 일정

- Meet Thanh Hoa - Korea(타잉화성 협력 세미나) 행사(3.24(목))
 - 타잉화성 지도부와 한국측 대표인사 간 미팅 및 만찬
 - 참석자 : (베트남측) 타잉화성 당서기, 인민위원장 등 총 30여명
(한국측) 박노완대사, 이종섭 코트라 본부장 등 총 30여명

시 간	프로그램
12:00~16:00	하노이→타잉화성 이동
16:00~17:15	- 개회사·축사 : 타잉화성 대표, 박노완 대사
	- 타잉화성 기진출기업 및 관심기업의 건의·애로사항 발표 및 토의
	- 타잉화성의 발전계획 발표
18:00~20:00	- 타잉화성 소재 베트남기업과 우리 기업간 협력방안 논의 공식만찬

- Meet Korea 2022 Conference 프로그램(3.25(금)-메인행사)

시 간	프로그램
8:00~8:30	- 사전등록, 사진촬영, 네트워킹
8:30~8:45	- 베트남 및 한국기업·기관의 전시부스 개막식
9:00~11:30	- 베트남 11개성별 한국대표단(관심기업) 미팅
11:30~13:00	- 오찬행사
14:00~14:30	컨퍼런스 Opening Session
	- (베) 팜 민 쩌 베트남총리, 부이 타잉 선 외교부 장관 - (한)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대사
14:30~15:40	Session 1. 한-베트남 무역투자 확대방안 - 패널토의(총 발표자 6명[한국측 3명, 베트남측 3명])
15:40~16:50	Session 2. 한-베트남 문화&인력교류, 개발협력 강화 - 패널토의(총 발표자 6명[한국측 3명, 베트남측 3명])
16:50~17:00	Closing Session
	- (한)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대사 - (베) 부이 타잉 선 외교부 장관
18:00~19:30	- 공식만찬



③

- 산업시찰 혹은 친선운동경기 참가(3.26)
 - 산업시찰(3.26일) : 응이손 경제구역, 응이손2 화력발전소 방문
 - ※ 응이손2 화력발전소는 한전, 두산중공업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
 - 친선운동경기(3.26일) : FLC예정
- 상담회 및 전시부스 설치
 - (G2B 상담회) 사전에 참가기업의 성별 건의사항·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지방성에 전달하며 행사당일 해당기업과 성별 책임자가 면담하여 애로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 . 1개성당 20분씩 대표단 면담하며 대사관, 공공기관, 해당성별 관심기업이 참가
 - (전시) 행사장내 전시부스 설치
 - . 베트남 측 홍보부스외에 참여 희망하는 한국기업 및 기관의 홍보부스와 코트라 홍보부스 설치 운영(베트남측 12개, 한국측 12개)
- 신청링크 : <https://forms.gle/ysPKUGjwYCjrS7fy5>
- 참고사항
 - 동 행사의 세부사항(전시규모, 참가규모, 세부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잉화성까지의 이동은 개별차량을 이용해 주십시오.
 - 예약을 위한 VinPearl호텔 담당자 정보는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끝>



신청링크



베트남 남서부 투자환경 온오프라인 간담회

○ 행사개요

- 일시 : 2022년 3월 25일(금), 10:30 ~ 13:00 (한국시간 12:30 ~ 15:00)
- 장소 : 베트남 달랏시 인민위원회 대회의실
- 주관 :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KOTRA 호치민무역관
- 협업 : (한국) KOTRA 하노이/다낭무역관, 무역협회(KITA), aT
(베트남) 럽동성 인민위원회/기획투자국/자연환경국, 남부투자진흥센터
- 참가자 : 베트남 스마트팜 및 투자진출 관심기업
- 참석 : 오프라인(온라인 동시 진행 'Zoom 활용)
- 주요 내용 : 럽동성/다농성 투자환경, 한국 스마트팜 현황 등

시간	내용	비고
10:30 ~ 11:20(베) 12:30 ~ 13:20(한)	베트남 럽동성/다농성 투자환경 발표	인민위원회 발표 (온라인 병행)
11:20 ~ 11:40(베) 13:20 ~ 13:40(한)	한국 스마트팜 산업 현황(잠정)	이수화학* (이경수 본부장, 온라인)
11:40 ~ 13:00(베) 13:40 ~ 15:00(한)	참가 한국 기업별 기업소개 및 질의응답	기업별 5분 이내 발표 (온라인 병행)

* 한-베 순차통역으로 진행

○ 참가신청 방법

온라인(클릭)

오프라인(클릭)

○ 문의처/접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 : jjy92@kotra.or.kr / +84-3822-3944(Ext. 133)



정책간담회 (물류산업)

☑ 행사개요

- 일시 : 2022년 4월 14일(목) 08:30~13:30 (한국시간 10:30~15:30)
- 장소 : 롯데호텔 하노이센터
- 주최 : KOTRA, VIETRADE
- 참가자 : 물류산업 관련업체
- 참석 : 오프라인(온라인 동시 진행: Zoom Webinar)
- 주요내용 : (베트남 정부)산업 발전 정책,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기업제)양국기업간 협력방안, 우리기업 애로-건의 정책 제안 등



☑ 프로그램

시간(베트남 시간)	내용	연사
8:30 ~ 9:00	참가자 등록 및 행사소개	
9:00 ~ 9:15	개회사	Mr. Vu Ba Phu 비엠티레이드 청장
	환영사	이종섭 본부장 코트라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9:15 ~ 9:35	산업 발전 정책과 지원 방향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출입청
9:35 ~ 9:55	베트남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베트남 교통부
9:55 ~ 10:10	커피 브레이크	
10:10 ~ 10:30	양국기업간 협력방안 및 제안	베트남 선두 물류기업
10:30 ~ 10:50	애로-건의 사항(투자·사업) 및 정책제안	한인물류협회(KOCA)
10:50 ~ 11:10	전략적 물류 인프라 구축 지역	InvestProcen
11:10 ~ 12:00	그룹 토론 및 정책제안	참가자 전원
12:00 ~ 13:30	오찬	현지 참가자

*한-베 순차통역으로 진행



※ 참가신청 링크: <https://forms.gle/E3p4MTozezSgP2DX6>

※ 문의처: 코리아데스크

● 최동철 팀장 / dcchoi@kotra.or.kr / 093 455 7363

● Ms. Tran Thu Quynh / thuquynh1124@kotra.or.kr / 094 759 5626

● Ms. Nguyen Thi Nguyet Ha / hanguyen@kotra.or.kr / 098 110 3280



3월
2022년



문의처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저작권자 © KOTRA >